

덕수궁 돌담길·달맞이 언덕... '밤산책' 딱이네!

(서울)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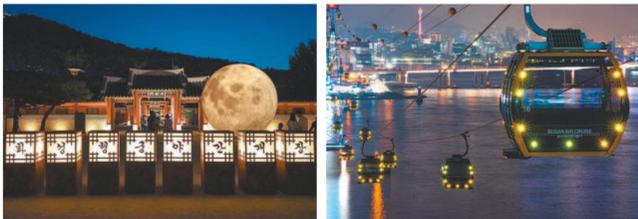
지자체 추천·T맵 빅데이터 활용 관광산업·지역경제 회복위해 추진 야간경제활동 활발한 특성 반영 관광객 체재일수 확대에 효과적

'서울 덕수궁 돌담길, 부산 달맞이 언덕 문래로, 광주 월봉서원, 경기도 화성행궁, 충남 서산해미읍성...'

우리나라 전역의 밤나들이 명소 '야간관광 100선'에 오른 지역들이다. '야간관광 100선'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중점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관광산업은 '생태계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경영위기에 빠진 관광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같은 긴급지원책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를 겨냥한 새 먹거리를 찾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야간관광 100선'이 그런 움직임의 하나이다.

'야간관광 100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우수하고 야간 경제활동이 활발



한국 관광의 새로운 콘텐트로 개발하는 야간관광의 명소로 선정된 곳들. (위부터 시계방향) 경관조명과 어우러진 언덕의 반영이 매력인 광주 동궁과 월지,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부산시 야경이 일찍이 송도해상케이블카,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밤산책의 명소 꼽히는 화성행궁.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한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이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이 지역에 하룻밤을 묵어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어 관광객 체재일수 확대에도 효과적이다.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육성하면 관광소비 증대와 함께 관련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추천, SK텔레콤 T맵의 야간시간대 목적지 빅 데이터(281만 건) 등을 통해 370여 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매력도, 접근성, 치안 안전, 지역기여를 판단해 100곳을 선정했다.

●야간 관광객 유치와 체재시간 증대 동시 효과

이번에 '야간관광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곳은 서울(덕수궁 돌담길, 반포한강공원 등), 부산(달맞이 언덕 문래로, 송도해상케이블카 등), 대구(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수성못 등), 인천(강화문화재 야행, 송도센트럴파크 등),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월봉서원), 대전(대동하늘공원, 달빛 품은 계곡산 남만산책), 울산(시티투어 생태탐방, 대왕암공원), 세종(세종호수공원), 경기(화성행궁 야간개장, 행주산성 등), 강원(별마로천문대, 안목해변 등), 충남(서산해미읍성, 궁남지 등), 충북(중앙탑 일원, 단양강잔도 등), 전남(여수 해상케이블카, 보성차밭빛축제 등), 전북(전주 문화재야행), 경남(통영밤바다 야경투어, 저도과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등), 경북(동궁과 월지, 월영야행 등), 제주(라이트 아트 페스타, 새연교 등) 등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하상석 한국관광공사 일본팀장은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했거나 숨겨져 있던 야간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려 야간시간대 관광객 유치 확보와 체재시간 증대를 통해 지역소득까지 유도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7일 온라인 예배로 유월절을 거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국내 포함 세계 175개국 하나님의 교회 300만 신자들은 각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유월절은 인류의 구원과 축복이 약속된 소중한 절기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였다'하신 이유"라며 "새

연약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재앙에서 보호받고,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전 세계인이 유월절을 지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월절을 가정에서 지킨 신자들은 성경대로 예식을 진행했다. 성찬예식에 앞서 가족들의 발을 서로 씻으며 세족예식을 거행했고 온라인 영상설교를 통해 유월절의 중요성과 그 안에 깃든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예식에 경건하게 참여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 사진제공 | 하나님의 교회

했다. 유월절 다음날인 무교절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예배로 진행됐다.

하나님의 교회는 해마다 성경대로 유월절, 무교절을 비롯한 3차의 7개 절기를 지키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글래드 호텔, 해외입국자 가족 패키지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는 서울 4개 글래드 호텔(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글래드 라이브 강남)에서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가족사랑' 패키지를 5월31일까지 진행한다.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하는 동안 가족들이 호텔 객실에서 지내는 상품이다. 1박당 6만 원(10% 세급별도)부터이며 최소 7박 이상 투숙 시 이용 가능하다.

롯데호텔부산 '도림'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롯데호텔부산이 중식당의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승차 구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롯데호텔부산은 중식당 도림에서 전 화로 예약을 하면 호텔 1층 정문 밖이나 내부 픽업장소에서 음식을 받고 결제하는 드라이브 스루 메뉴를 운영한다. 메뉴는 돼지고기 탕수육부터 불도장까지 면류를 제외한 40여 가지다.

김재범 기자

오늘의 운세 (9일·목)

4월 9일(목) 음력: 3월 17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새, 외롭다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진눈깨비, 혼란
만사가 흥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걸릴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오늘은 재실일이다. 재실일에는 인간관계나 명예에 관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자존심으로 인한 마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방등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증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오늘은 도화일이며 소피에게는 인수이다. 도화일에는 외모에 치중하여 집안일이나 바깥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먹고 노는 일에 치중하니 성실성과 근면성이 부족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답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은 장성일이다. 자기 속한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기 위해 출사하는 날이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오늘은 유해일이다. 유해는 왕한 기운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일단 본인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해결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파도, 우왕좌왕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오늘은 재실일이다. 영리한 두뇌와 수완으로 실력자를 움직여 엄청난 이득을 꾀하는 기운이다. 오늘 도움을 받으려면 말피에게 부탁하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예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들따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오늘은 도화의 날이다. 비검도화이다. 재물손실이나 가정불화가 있을 수 있다.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장성일이다. 장성이 장성을 만났다. 비견이 겹쳐서 강해지면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위주가 된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유해일이며 양피에게는 인성이다. 오늘은 서두르면 계약이 실패될 수 있다.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비바람, 힘들다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돼지	행운색: 적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맑음, 권태롭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오늘은 재실일이며 원숭이에게는 관살이다. 손재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평판하라. 오늘은 재실일이며 닭에게는 관살이다. 지살이 관살이면 의무, 교통, 무역업 등 해외근무와 인연이 좋다.	오늘의 행상은 저녁놀이 산천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해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 하라. 학업 및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며,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삼가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오늘은 유해일이다. 움직일 수가 없다. 유해는 고도의 머리를 써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기운이다. 관재, 송사, 사고를 조심하라.				

경제 15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날씨와 생활

9일(목)		
서울 0/20 4/15	인천 0/0 5/12	수원 0/20 2/14
춘천 0/20 1/16	강릉 0/60 5/13	청주 0/0 4/16
대전 0/0 3/17	전주 20/20 2/16	광주 10/20 4/17
대구 0/20 4/18	울산 0/20 5/17	부산 0/20 7/17
창원 0/20 5/17	제주 0/20 9/15	지역 강수 확률 (안/우)
		날씨 최고/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6:06 해질 19:02 🌙 달돋이 20:28 달질 06:59

산 날씨

북한산	1/16	내장산	1/14
설악산	3/12	무등산	0/16
오대산	1/17	주왕산	-1/16
속리산	-2/15	지리산	2/19
계룡산	1/16	한라산	9/17

바다 날씨

인천송도	5/12	안면도 꽃지	2/14
제주도	3/13	변산반도	2/13
경포대	5/13	거문도	2/17
속초	4/12	해운대	7/17
대전	1/15	제주도	9/15

미세먼지

서울	17	충청	대전	18	충청
부산	32	보통	울산	31	보통
대구	25	좋은	경기	17	좋은
인천	16	좋은	경북	25	좋은
광주	19	좋은	제주	35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0일 서울경기	6/16	충청	4/14	충청	4/17
(금)	충청	5/16	충청	9/13	제주
11일 서울경기	6/17	충청	6/16	충청	6/17
(토)	충청	5/17	충청	8/15	제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유료부수 2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361-1610

발행인	이인철	편집부장	좌혜경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부장	김도현
편집국장	연재호	엔터테인먼트부장	윤여수
광고국장	이승욱	경제부장	김재범
인쇄	동아일보사	뉴미디어전략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361-1616 sd@donga.com